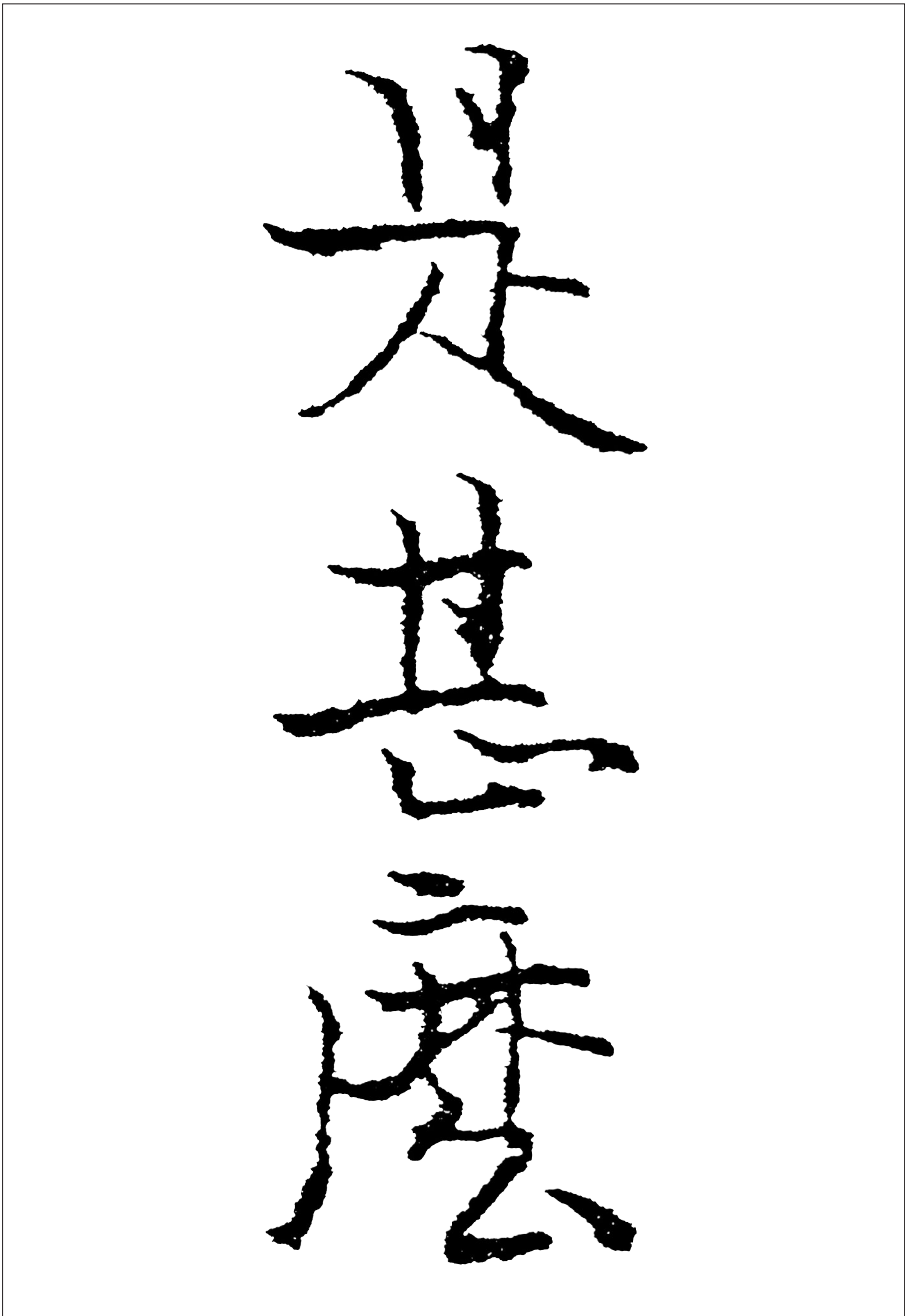


갤러리 색즉시공



글씨 · 한암 대중사 (1876~1951)

시심마(是心) "이것이 무엇인가(이렇고)?"

시심마(是心)란 '이것이 무엇인가?' 또는 간단히 '이게 뭐야'라는 뜻이다. '설봉심마(雪峰心) 공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백양록》 51쪽에 나온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상으로 설봉 선사를 찾아갔다. 그때 설봉 선사는 그들을 향해 몸을 앞으로 숙 내밀며 '시심마(是心)',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던 것이다. 이후 시심마는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렇고'라는 경상도 버전으로 재탄생하여 한국산 화두 1호가 되었다.

시심마(是心)란 '이것이 무엇인가?'는 곧 '무엇이 부처인가?' '그대의 본래면목은 무엇인가?' 하는 화두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이며, 더 나아가 문제의식을 가리키는 철학적인 주제이다.

2월 14일이면 90일 간의 동안제가 끝난다. 안거 기간 남자들은 하루 열 시간 이상 옹병정진을 하며 기쁨도 무(無)를, 간사귀을, 시심마를 뚫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화두에 몰입(All-in)한다. 강한 자아의식인 에고(ego)가 사라지고 순백의 의식인 정정한 불성이 독보하는 환희의 순간인 것이다.

또한 안거가 끝나고 해제가 시작되면 남자들은 풍선이 된다. 구름처럼 물처럼(雲水) 결망을 메고 정처 없이 다닌다. 그것을 행각, 만행이라고 한다. 이것은 곧 입전수수(入塵垂手, 중생 속으로)로 90일 동안 공부한 것을 테스트해 보는 행각의 본래 의미이다.

시심마(是心) '하루 10시간씩 앉아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살아 있는 진정한 화두 '오늘의 시심마'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철학적인 주제이다.



글 · 윤창화 (인족사 대표)

늘 가슴저린 이름 '어머니'

어머니 생각

오랜만에 서점에 갔다가 눈을 끄는 제목이 있어 시집 한 권을 샀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흠가분하다>입니다. 그 중 '어머니'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품속에서 엄마를 찾아 헤매지 않게 옆에 계셔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뵙고 싶으면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하시듯이 자식들 위해 수십 년 거르지 않고 새벽기도 하시는 엄마의 모습은 단아하고 정결하고 거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엄마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아들과 꽃미남 막내아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딸 여섯을 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엄마 큰아들이 "유학 가서 아주 힘든 상황이었을 때 교회 나오면 힘든 것 모두 해결해 줄 테니 교회에 나오라는 목사님의 말씀에도 절에 가서 기도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쉽게 도움받기를 마다하고 더욱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고 말했어요.

학위 받고 귀국해서도 가족들과 해인사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성철 스님 법문도 듣고 신행생활을 하는 당신의 종교를 따라준 큰아들 가족들이 고마워서 무척 좋아했지요, 물론 두 가족은 진실한 기독교신자로서 성실하게 하느님 섬김이 좋은 두 권사님도 있지만 서로 종교에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 것도 다행이구요, 왕복 차타는 시간만 4시간이 걸리는 수원을 수시로 오가며 엄마를 만나고 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수원 가고 있어." "그래 어서와." 전화로 들리는 엄마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늦은이는 외로운 게 큰 병이야." 한 번이라도 더 같이 있어드리면서 외로움을 달래드리려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제도 짜증 안내고 더 들어드리려고 말할 중에 제일 예쁘고 애교있는 막내가 엄마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엄마 그 소리 한번만 더하면 백번 이겨든"하면 서로 쳐다보며 "그랬어" 하시면서 한바탕 깔깔 웃으시는 엄마.

"식구들이 모두 출근하고 나면 혼자 밥이 먹기 싫어." 한 끼 밥이라도 더 함께 하려고, 냉장고에 맛있는 반찬이 가득 있건만 밥을 물에 말아서 김치하고 한 술 뜨시고 마는 엄마가 밝혀서 시간만 나면 수원으로 달려가곤 하죠.

가고 있다는 전화만 하면 힘드신 줄도 모르시고 더운밤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어서와, 밥 먹지" 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는 엄마를 보면 감사했습니다. 이 연세에도 자식들 위해 식사준비를 손수하시며 즐겨워하시는 건강한 모습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엄마께 건강을 주셔서요" 하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즐거운 시간이 지나면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하지요, 그러면 엄마는 서운해 하시며 "애미

자재화보살의 바라밀일기



가야지? 자주 와! 너무 늙은이야 차조심하구" 배웅하시고는 얼른 들어가셔서 배란다에서 내려다보시며 "에미야 잘 가" 손을 흔드시며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계신 엄마를 뒤로 하고는 가끔 눈물을 닦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시간이면 영락없이 잘 도착했는지 확인 전화하시는 엄마. 그러던 몇 주 전에 손을 흔들고 가는 제 모습을 다시는 못 볼 것만 같아 눈물이 났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마음이 조금해졌습니다. 동생들한테 전화해 안부전화하라고 더 자주 드리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저보다 더 살갑게 살피드리는 동생들이라 고맙고 든든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이 절 저 절 모시고 다니며 그 고장의 특색 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는 큰아들 내외를 보고는 "아마 시에미 데리고 이렇게 나들이 잘 시키는 데느리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하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나는 안 가 본 데가 없다. 원 없이 살것 다녀왔다." 하시며 저한테 자랑하시는 엄마를 보면 큰 동생 내외한테 많은 고마움을 느끼곤 합니다. 집 근처에 살며 가끔씩 이것저것 살피드리는 착한 막내며느리, 먼 곳에 살면서도 안부 자주하고 이 것 저 것 챙겨 보내는 셋째와 넷째 딸, 어느 자식이나 불효하는 자식 없는 엄마는 행복하십니다.

아버지 생각

조금만 편찮으시면 자기 집으로 모셔가 병수발 말아하는 다섯 딸. 친정집에 들려 이곳저곳 살피고, 때마다 도배장판하고 낡은 커튼 바꾸고 음식고 침대 바꿀 때 되면 썩 바꾸어 놓고 맛있는 병장찌개 보내는, 부모님 일이라면 제일 먼저 발 벗고 나서는 대저는 막내딸내외. 노인들일수록 환경이 쾌적해야 되고 영양공급을 잘 해드려야 된다고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자식들이 모두 잘 해주셔 여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많이 그리워지네요. 시간만 나면 "세상을 혼자서는 못 산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야. 남달리고 절대 척 짓지 말고 살아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게 없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면 되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거라. 콩 한쪽이라도 나누어 먹구. 배ભ면서 살아야 한다. 집에 찾아온 손님을 맨입으로 보내신 안 된다 차 한 잔, 과일 몇 쪽이라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따뜻한 밥 지어 대접해 보내야 하구. 남에

게 피해 주지말구 살아야 하구. 시어른 말씀 거스르지 말구 정성껏 잘 모셔라. 부모님께 잘 해야 너희 자식들이 잘 되는 거야 그분들이 아이들의 뿌리서, 모든 복은 효에서 나오는 거야" 등등 이 모든 말씀들이 경전에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조카가 학비 때문에 힘들어 했을 때에도 몰래 엄마 패물을 팔아서 대주셨던 일. 6.25직후 처음으로 탈실이 나와 장미표 공작실로 짠 스웨터를 추운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작은 고모님께 선뜻 벗어 입혀 보내셨던 일을 지금도 작은 고모는 그 애길 하시고 또 하시죠.

엄마는 보시를 하셔도 한 바 없이 또 때를 놓치지 않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부처님 말씀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식구끼리 살아본 적이 거의 없이 시골 서울에서 항상 친척들이 와서 여관처럼 묵어도 소리 없이 뒷바라지 하였고 부산 피난 가서까지도 취직시켜달라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따로 셋방을 얻어서 뒷바라지 해대며 취직시켜서 내보내신 우리 엄마 아버지, 지금 생각하니 정말 보살님들이었습니다.

당신도 노인이시면서 혼자 계신 두 고모님 모셔다 외롭지 않게 오랜 기간 같이하시며 대접하셨죠. 큰고모님은 항상 "자네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어른들 자식들밖에 모르셨어. 아주 많이 아끼시고 예뻐하셨지,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된 거야." 작은 고모님도 "언니 고마워요 우리 부모님께 잘 해드려서요" 시집살이 하실 때는 세 시간 이상 잠을 자곤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미수가 되신 지금에도 새벽에 세수하고 화장하셔야 기도 시작하시는 습관은 여전하시지요. 평생 화장 안하신 얼굴을 아버지께 보인 적이 없으십니다.

엄마는 한 평생을 율바라밀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살아오신, 살아계신 보살이십니다. 엄마 부부는 칠천 겁의 인연. 부모 자식간의 인연은 8천 겁, 형제 간의 인연은 구천 겁이라지요. 이렇게 지중한 인연으로 만난 우리형제들 서로 소중히 여기며 잘 살아갈게요.

엄마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 못한 일들 모두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셔야 해요 이제 남은 여성 평안하고 건강하세요. 엄마, 저희 형제들 모두가 엄마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오늘은 엄마 88세 생신. 미수라고 하죠. 그래서 큰아들이 S호텔에 예약을 해 놓고 부득이 해외출장을 갔는데 생신날이 귀국하는 날이란 걸 아시고는 귀국해서 허덕이고 애슬 아드님 생각에 완강하게 우기셔서 계획을 몇 번이나 바꾸게 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단출하게 가까운 친척 몇 분과 가족들만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보다는 자식들을 먼저 배려하시는 엄마. 한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엄마는 그런 호사를 누리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신데. 자식들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엄마 말씀대로 이런 조촐한 상을 차렸지만 엄마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 큰 회한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성껏 차린 음식이니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시간 갖게요.

2009년 엄마 생신날 큰딸 올림.

Advertisement for '경혈자극 해독요법' (Acupoint Stimulation Detoxification Method) by Dr. Kang Young-jae. Features a photo of the doctor and a list of symptoms treated, such as back pain, leg numbness, and joint pain.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linic in Seoul.

Advertisement for '천비록' (Heaven, Earth, Human Secret) and '인비록' (Human Secret). '천비록' is described as a book revealing secrets of heaven, earth, and humans. '인비록' is a book about the path of death. Both books are priced at 15,000 won.

Advertisement for '온열복대' (Warmth Recovery Belt) by '건강백제' (Healthy Baekje). The product is a gold strength medicine belt that provides warmth and relief. It features a photo of the belt and lists its benefits for various ailments like back pain and joint stiffnes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nufacturer is provided.